Harper's

BAZAAR

PLUS;
샬럿 램플링
송창의, 키츠네
패트릭 리

美人圖
김무열, 황우슬혜

BEAUTY TALK
장미 예찬, 레티놀 다시 보기,
진화하는 파운데이션
립스틱 전성 시대
물광주사, 생식 체험

Giorgio Armani

알랭 드 보통의 인생 학교
서도호가 우리에게 지어준 집
리우 볼린의 패션 메시지
이태원 프리덤

SPRING'S FABULOUS HITS

APRIL 6,000원
04
9 771228 111007
ISSN 1228-1115

서도호가 우리에게 지어준 집

서도호는 개인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날실과 씨실처럼 정교하게 직조해 '집'을 짓는다. 마치 옷처럼 천으로 지은 집을 전시하고, 다시 접어서 케이스에 담아 온 세계를 다니던 서도호가 10년 만에 고국에서 그 집들을 펼쳐 보이는 거다. 서울로 귀환해 전혀 다른 의미의 작품으로 재탄생한 그의 집을 이야기하다 보니, 일상에 정체되어 있던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 춤을 추는 듯했다. 에디터/ 윤혜정

'청사진(리옴 버전)', 2010–2012, Polyester Fabric, Stainless Steel Frame

'낙하산 병-III', 2006,
Mixed Media, 537 x 444 cm

사진/© Do Ho Suh

MASCHINEN ARCHAEOLOGIST

서도호를 만나러 가는 길, 차를 벽에 들이받았다. 성북동의 좁고 경사진 골목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충돌'에, 난 롤러코스터 탄 사람처럼 한 손은 핸들을, 한 손은 천장 손잡이를 쥐었다. 약속 시간보다 7분가량 늦었고, 인터뷰 질문은 머릿속에서 난수표처럼 뱅뱅 도는데 그 와중에도 충돌의 느낌이 상당히 강렬해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확 돌았다. '아, 내 몸이 실린 물체가 또 다른 물체에 들이받는 느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다 아는 것처럼 사용하는 개념 중 경험으로 알게 된 건 그리 많지 않다. 어쨌든 그나마 '충돌'이 아니라 '연착륙' 정도에 그칠 수 있었던 건 벽 앞에 있던 쓰레기통이 힘을 분산시켜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살 난 쓰레기통을 보며 생각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태평양 위에 떨어지고, 집이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총천연색 꿈을 꾼 게 오늘 사고의 징후였나? 평범함을 콤플렉스처럼 안고 사는 내가 '서도호'라는 특별한 세계와 조우하던 그 순간을 부딪침이 선물한 낯선 쾌감으로, 온몸으로 기억할 것 같다. 첫 인사를 소란한 꿈 이야기와 접촉 사고로 대신한 내게 평생 채식만 할 것 같은 맑은 얼굴을 한 서도호가 말했다. "좋은 인터뷰가 되겠군요."

그것이 위로였든 아니었든 간에 서도호와의 '좋은 인터뷰'를 꿈꿔온 건 사실이다. 언젠가 뉴욕 디자이너 정두리가 서도호를 인터뷰하는 칼럼을 기획하기도 했다.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나 여전히 아쉽다. 두 코스모폴리탄이 만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에너지가 뿜어나올 거라는 믿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서도호가 한 이 말 때문이었다. "의상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장 작고 가장 사적인 거주지다. 여기서 발전한 것이 건축물이다." 옷을 '짓는' 여자와 집을 '짓는' 남자와의 만남이라, 꽤 매혹적이다. 어쩌면 오는 3월 20일에 리움에서 열리는 서도호의 개인전을 통해 그때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이번에 그가 '지은' 집들을 공개하고, 관객들을 초대하는 개인전을 연다.

서도호는 "난 3차원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 현실과 경험에 근거해 작업하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인터뷰의 서막을 열었다. 이번에 그는 그동안 살았던 집 다섯 채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다. "전혀 다른 맥락에서 보여졌던 집들이 리움에 오면서 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오늘 작품 두 점이 추가되면서 작품들끼리의 관계가 또 다이내믹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뉴욕 아파트를 통해 베를린의 집이 보이죠. 작품과의 관계, 공간과의 관계가 펼쳐지는 나름의 대화가 있어요. 전시장이 채워질수록 점점 흥분돼요." 흥분되긴 매한가지. 그의 작품은 스케일(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이 크다. 그의 집은 대륙과 바다 건너 어딘가에 설치되어 누군가에게 사유의 시간을 선사한 과거를 가진다. 그가 10여 년 전, 처음 천으로 만든 '서울 집'은 세계를 돌며 지명을 더해 '서울 집/ 엘에이 집/ 뉴욕 집/ 볼티모어 집/ 런던 집/ 시애틀 집'으로 확장되어왔다. 누군가의 사공간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건 서도호가 이 집들을 지었다는 사실만큼이나 흥미롭다.

보통 예술작품을 대할 때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아는' 단계를 정직하게 거친다면, 당신의 작품들은 일련의 단계를 뛰어넘어 '겪는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그것이 서도호라는 작가의 작품이 가진 힘일까, '집'이라는 보편적 주제가 주는 아우라일까 궁금해지더군요. 굉장한 칭찬처럼 들리는데요?(웃음) 조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다녀간 친구도 있고, 뉴욕 아파트에 와 있던 친구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익숙한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 작품을 설치하면서 계속 리마인드 된다고나 할까? 그걸 '언캐니하다'는 단어로 정의하고 싶어요. 현실과 거리가 먼데, 그게 현실과 허상 사이에서 계속 진동하는 거죠. 작품에 포함된 정보가 건물을 연상하게 하고 그 안에서의 경험을 촉발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 전 오죽하겠어요. 그걸 모르는 관객들은 또 어떨까 궁금해요. 공공장소에 마련된 프라이빗한 공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아는 서도호는 거실에 걸어두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아니에요. 이번 전시가 재미있는 건, 공적 영역에 있던 작가가 공개하는 사적인 집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공간이 서도호의 공간과 어떻게 충돌할까 궁금해지면서, 먼 데 있는 듯한 사람이 옆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번 작품들은 작가로서 제 개인사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관객 입장에서는 엿보는 건데, 작품 자체가 투명하다 보니까 엿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객이 있는 거예요. 주체에서 객체로, 왔다갔다 변환되는 거죠. 작품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관객에 의해 작품이 완성된다는 얘기가 아주 헛소리는 아니에요. 또한 제 경험은 이 집들과 떼려야 뗄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과 같아요. 한국말은 우리에게 이 천처럼 투명한 존재죠. 제가 반제도적, 반체제적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그건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대한 거예요. 공기 생각 안 하고 숨 쉬듯, 그런 고정관념이나 틀에 박힌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게 작가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에는 자서전적인 작품은 쿨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자화자찬일 수도 있겠지만 접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된 거지, 뭐.(웃음)

이번 전시 제목은 <집 속의 집>이다. 사적인 공간인 집이 공적인 공간인 미술관에 들어가고, 서도호가 어릴 때 살던 한옥집이 뉴욕의 집 안에 들어가며, 렘 쿨하스가 지은 집에 서도호가 지은 집이 들어가고, 결국 서도호의 '공간'에 내 '공간'이 들어간다는 의미.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서도호는 '시간을 품은 공간'을 백분 활용했다. 리움의 수석 큐레이터인 우혜수는 전시 설명글에서 이렇게 쓰며 궁금증을 배가시켰다. '리움의 기획전시실은 그라운드갤러리와 블랙박스라는 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도호는 기획전시실 안과 밖을 활용하여 작품에 새로운 시각과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기획전시실로 향하는 입구 경사로에 설치된 '반영(Reflection)'은 도입부의 역할을 한다. 이는 문과 같으면서 이 전시의 출발이 집이라는 걸 암시한다. 그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압도적인 콘크리트 공간에 서도호는 부드럽고 가벼운 반투명 천으로 집을 지었다.(후략)' 그러나 서도호는 블랙박스는 사실 전시 공간으로는 굉장히 힘든 공간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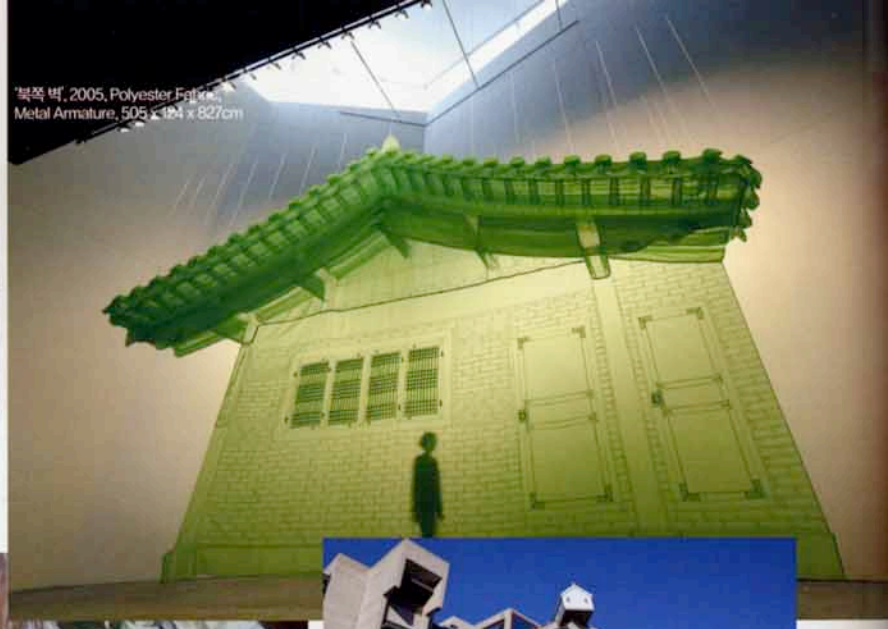
렘 쿨하스의 블랙박스는 이번 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제겐 미술관으로 단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맥락 속에 어떻게 작품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이슈예요. 렘 쿨하스 공간은 일단 화이트 큐브가 아니에요. 직각으로 된 공간도 없고, 죽은 공간도 많아요. 천장에 있는 창으로 자연광이 들어오는데,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 빛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했어요. 제 작품이 '장소특정적'이라 하는 건 그런 물리적인 부분은 물론, 비물리적이라 볼 수 있는 건축가의 의도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렘 쿨하스가 자기가 디자인한 건물 안에 블랙박스라는 이질적인 건물을 만들어 넣은 거거든요. 그 자체가 '집 속의 집'이죠. 그게 제 작품에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를 통해 렘 쿨하스의 의도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거꾸로.

10년 전 전시를 연 아트선재센터와 비교했을 때 리움은 태생도, 성격도, 의미도 다른 곳이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건가요? 넓게는요. 개인적으로는 마리오 보타가 디자인한 고미술전시장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소장품이 건축가의 디자인과 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계단'라는 작품이 고미술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되었어요. 제가 살았던 집들을 전시한다는 건 시간성의 의미를 갖잖아요? 흥미로운 동시에 모순이 많은 미술관 안에 또 과거, 현재가 공존하는 거죠. 내 작품을 통해 현대 쪽과 고대 쪽을 연결하려는 제스처를 쓴 거죠. 그냥 컨템포러리 미술관이었다면 또 다른 의미가 됐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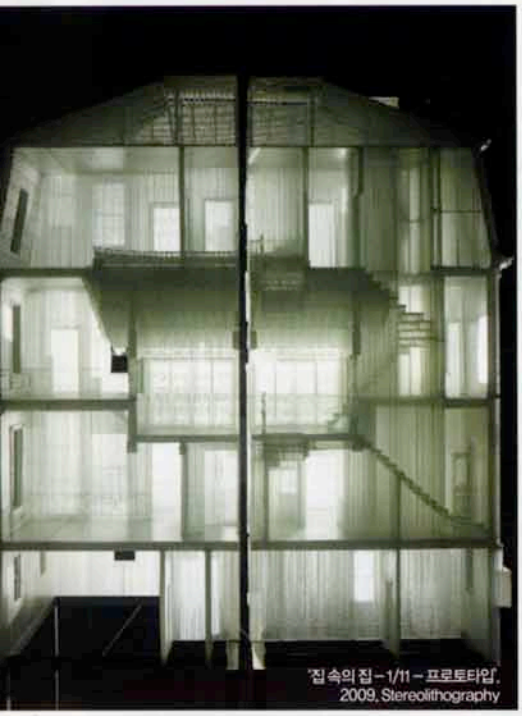
서도호의 전시 소식에 난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고대하는 아이의 마음이 되었다. 그는 명백히 한국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아베돈이나 칼 라거펠트 같은, 실제보다 이미지가 더 거대한 '명사'로 인식되어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막연한 친근감이 커진다. 매체들이 그를 늘 비슷한 포맷으로 설명하는 걸 너무 많이 본 탓도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서울대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미국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회화과, 예일대 대학원 조소과 졸업.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의 대표작가." 이전 세대의 대표 작가였던 서세옥의 아들이자 영향력 있는 화가 몇 위라는 말도 추가된다. 그의 작품과 개인사를 직조하여 주석을 줄줄이 단 논문 수준의 텍스트도 쏟아진다. 하지만 서도호의 작품을 직접 본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 여겨지는 건 그가 다른 작가들처럼 꼬박꼬박 적금 붓듯 때가 되면 개인전을 여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의로 그의 작품을 본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일상적인 장소에서 그의 작품을 봐왔기 때문이다. 타임스퀘어에 갈 때마다 수많은 인파와 어깨를 부딪치며 '카르마(인연)'라는 작품을 만나곤 한다. 사람 어깨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올라탄 형상이 동양의 탑 같은 이 작품은 쇼핑할 때조차도 과연 난 얼마만큼의 공간을 갖고 사는지 생각하게 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명성이 낳은 고정관념을 들어내고, 서도호라는 사람 자체에 몰입한다면 작품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서도호라는 작가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등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더 자주 접해왔기 때문일까요. 하여간 디지털 상태의 평면적 작품으로 보여지는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가 많이 달라지나요? 작품이 완성되어 스튜디오를 떠나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테크놀러지가 가져온 일종의 혁명 같은 거예요.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시스템은 물론 정보의 가치가 완전히 변한 거죠. 사실 전 저작권에 대해 다른 작가들에 비해 루스해요. 아티스트로서 오리지널한 작품을 내놓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오리지널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전인자부터 부모님을 통해 물려받은 거고, 교육과 문화도 이미 존재했던 거잖아요. 얼마만큼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힘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건 작가는 작품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고들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미술은 어렵다고 여기는 거고요. 양파처럼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누구든 나름의 방식으로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나가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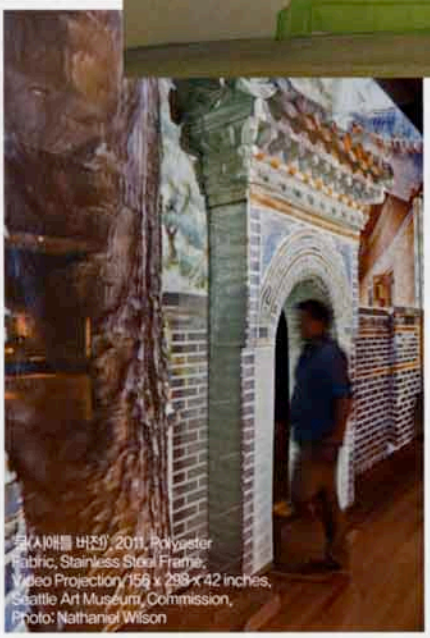
'완벽한 집' 브릿지 프로젝트', 2010, Stills from A Perfect Home: The Bridge Project, Synchronized Four-monitor Animated Digital Slide Presentation, Color



'북쪽 벽', 2005, Polyester Fabric, Metal Armature, 505 x 124 x 82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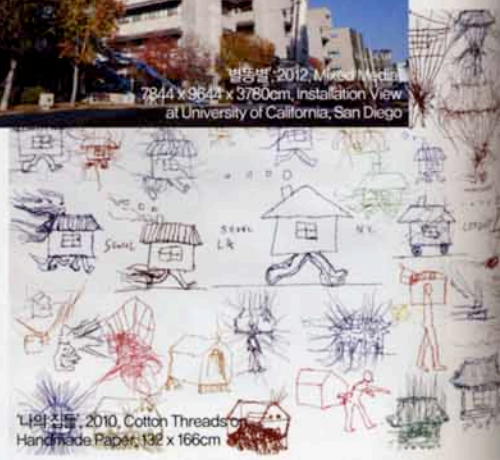


'집 속의 집 – 1/11 – 프로토타입', 2009, Stereolithography



'집(사이들 버전)', 2011, Polyester Fabric, Stainless Steel Frame, Video Projection, 156 x 298 x 42 inches, Seattle Art Museum, Commission, Photo: Nathaniel Wilson

'별동별', 2012, Mixed Media, 7344 x 9644 x 3780cm, Installation View a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나와 집들', 2010, Cotton Threads on Handmade Paper, 132 x 166cm

거든요. 근데 양파를 다 벗기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워낙 없는 건데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벗기는 거죠. 중요한 건 레이어를 벗기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리지낼러티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와닿았던 건 그가 한국을 떠난 후 오리지낼러티에 대해서 고민했을 시간 때문이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 사회, 경제, 정치 분야 등에서 일어나는 분란들은 상당수 내가 세상의 중심이며 오리지널이라는 생각이 원인이 된다. 서도호는 다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자란 성북동의 집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순조가 평민의 삶을 경험하고 싶어 지은(복제) 민가의 사랑채를 본따 한옥을 지었다. 그 궁을 지을 때 쓰인 목재가 '복제품'을 짓는 데 사용되었고, 그 '복제품'은 다시 원래의 궁을 복원하기 위한 모델로 쓰이고 있다. 아마도 서도호는 그때부터 오리지낼러티와 복제품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부터 한옥을 '복제'한 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집 떠난 그가 집을 '복제'한 이유가 단순히 향수병을 달래기 위해서, 라고 말할 수는 없다.

10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서도호라는 작가의 위상도, 인식도, 작품도.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나요? 작품이 달라졌다기보다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전시 카탈로그에 2001년쯤 쓴 제 짧은 에세이가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 땅에서 미국으로 간 게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고,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경험이었다. 그러면서 그게 집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걸 역추적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 계기란 예전에 살던 성북동 한옥집에서의 경험 같은 건가요? 대문을 넘나들며 현재와 과거를 들락거리는 것 같았다는 말에 무릎을 쳤거든요. 그런 거죠. 저희 부모님을 모셨다는 것도, 그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언어나 공기처럼 당연히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었겠죠. 그리고 공간을 테마로 한 작업은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시작됐어요. 촉매 역할을 한 건 한국을 떠난 거지만 공간에 대한 생각의 인자는 이미 내재되어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장소특성적인 작업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그 장소랑 인연을 맺는 건데요. 공간을 보자마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서 회전목마처럼 돌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나와요. 너무 영적인 얘기 같지만, 자꾸들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느냐'고. 저도 알고 싶어요. 그 '장소특정적'이라는 게 그 장소와 나의 인연의 결과인 것 같아요.

서도호의 작품은 '의도치 않게' 아름답다. 현대미술가에게 칭찬은 아니겠지만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물욕이 일 정도다. 또한 돈이면 갖지 못할 작품이 없는 세상이라도 그의 작품만큼은 안 될 것 같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소유욕과 서도호의 작품이 갖는 특성이 '충돌'한다는 거다. 그 결과, 가지지 못하는 그의 작품들은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리고 과정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특히 이번엔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다. 아무리 1:1 크기로 만들어졌다 해도, 일단 투명한 천이 걸려 있는 이미지가 마치 아름다운 종아리와 복사뼈를 가진 여성에게 어울리는 원피스 같다.(반면 전작 중 수많은 군번줄로 갑옷을 만든 'Some/One'이나 '카르마' 같은 작품들은 근육질의 남자 팔뚝을 연상시킨다.) '서울 집'을 처음 발표했을 때 <뉴욕 타임스>에 그가 대서특필된 적이 있는데, 그때 서도호는 'Miss'로 표기되었다. 천으로 섬세하게 동양식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여자로 오해받은 거다. 하늘거리는 천이 페미닌하다는 것도, 천 작업은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것도, 결국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 모든 건 고운 빛깔의 천에서 시작된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 천 작업 자체가 서도호라는 작가에게 언어나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천으로 만드는 옷처럼 건축이라는 게 우릴 둘러싸고 있잖아요. 어딘가로 이사를 가더라도 익숙해지면 그 공간에 대해 처음처럼 구석구석 관심을 안 두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공간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기 쉬워요. 또한 제 천 작업은 또 물질적으로 무거운 게 아니

ARS/© Do Ho Suh

'계단', 2008, Translucent Nylon,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for Psycho Buildings: Artists take on Architecture(Hayward Gallery, London, 28 May~25 August 2008), 2008

라 가벼운 거니까. 왜 천도 그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벨벳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천을 썼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공간에 대한 기억과 정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현실세계에서 그걸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아주 투명한 천이었던 거죠. 천을 접어서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어떤 기억이라든가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그게 가장 적합한 재료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집의 부분들을 집요하리만치 정교하게 재현했는지 궁금했어요. 디테일은 집을 집답게 보이게 하는 요소인 동시에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천으로 할 수 있는 한 극단으로 간 거지만, 오리지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기억을 촉발시키는 정도의 정보인 거예요. 작품 몇 점은 예전 작품을 새로 만든 거예요. 확실히 디테일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죠. 기술적으로 발전한 탓도 있겠고, 제가 거기서 더 오래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간들이 더 진하게 보인 거겠죠. 디테일이 좋아질 수밖에요. 실제 바느질하는 친구들이 더 잘 만들려고 집착했을 수도 있고요.(웃음) 그런데 신기하게도 작품은 더 투명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천의 물성이 더 보였다면, 익숙해져서 보니 퓨어한 아이디어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섯 채의 집이 모두 전시장에 들어서는 모습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게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다 압축시켜놓은 거니까. 저의 작가로서의 여정이 '서울 집'으로 시작됐잖아요. 1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집을 지었죠. 그래서 한데 모아놓은 게 마치 계획했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보여요. 제 작품이긴 하지만 제가 모르는 큰 밑그림이 이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좀 무섭기도 하고.

전시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엉뚱하게도 딸아이가 거실에 펼쳐둔 텐트(몽골인의 집처럼 생긴)가 떠올랐다. 아이는 모든 일이 제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곳으로 기어들어갔다. 말하자면 그곳은 세 살 난 여자아이가 일종의 명상을 하거나 외로움을 달래는 공간이었던 거다. 재미있는 건 그 집이 제 또래의 친구들과 친해지고 가족들에게 애정을 표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기도 했다는 사실. 가족들은 좁아터진 거실에서 언제 저 텐트를 치워버릴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지만, 아이는 텐트를 화장실처럼 원래 존재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것 같았고, 어른들도 어느 순간 그 텐트를 붙박이장 정도로 생각했다. 부지불식간에 집의 일부가 되어버린 '집 속의 집'은 어른들과 아이의 세상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곳으로 보였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서도호의 '별똥별' 때문이었다. '별똥별 1/5'은 탄생 스토리를 갖고 있다. 작가의 서울 집이 운명의 바람에 휩쓸려 날아 올라 태평양을 건너 미국 집과 충돌해 박힌다는 내용. 단순하게는 타향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작가의 문화적, 심리적인 충격에 대한 메시지처럼 읽힌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충돌이라고 보기엔 그 이후의 작품들이 의미심장하다. 처음에는 부서진 것만 보여주다가 집의 내부를 아주 상세히 보여주고, 이윽고 최근에는 집 속에 집이 들어간 형태의 집을 만들었다. 나는 궁금했다. 고향과 타향의 경계를 지워온 그에게 이것이 안착일까? 그렇다면 작품도, 그도 진화한 건가?

'별똥별'을 보고 궁금한 게 생겼어요. 다른 건 다 집인데, 왜 이건 별이지? 한옥은 곧 한국 문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이 우주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게 건축이니까요. 한옥 자체가 자연과 소통이 되는 디자인이에요. 결국 사람이 세상의 큰 일부라는 얘기인데, 서양 건축과 굉장히 다른 특징이죠. 게다가 별똥별은 외계에서 날아온 거잖아요. 어떤 문화나 시스템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영주권의 공식 타이틀이 'Resistered Alien'이에요. '아, 나는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이구나' 매번 자각했죠.

처음에는 '별똥별'의 충돌 상태만 보여주다 다음에는 충돌한 집의 내부, 그리고 결국 집 안에 집이 들어가 있는 '집 속의 집 1/11'까지, 그건 변화일까요, 진화일까요? 아주 좋은 관찰이신데, 진화가 더 맞겠죠. 전시 시기와 상관없이 제 머릿속이나 작업실에는 항상 이걸 잇는 다른 작품들이 짝 있으니까요. 게다가 작품도 여러 가닥으로 오픈해놓았어요. 개념적으로는 집 속에 집이 들어가 있는 건데 밖에서 들어간 건지, 안에서 생겨났는지는 관객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한옥이 작으니까 자연스럽게 한옥이 서양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옥에 앉아 있는 걸까요, 서양 집에 앉아 있는 걸까요? 혹은 두 가지 모두일까요? 집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복잡해져요. 종양이 커지면 숙주 자체를 먹어버리거나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숙주가 세면 그냥 사그러들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인연 따라 가는 거지, 아마도 동시에 두 방향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별똥별'의 탄생 스토리는 참 재미있었어요. 전작들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곳곳에서 발견되더군요. 이를테면 개인용품을 다 버리고 낙하산을 폈다는 대목이 있는데 전작 중 '낙하산 병사'도 있죠. 어느 인터뷰에서 "천 작업이 내겐 일종의 낙하산이었다"고 말한 걸 봤어요. '충돌'이 아니라 '연착륙' 할 수 있게 해준 그때의 낙하산과 지금의 낙하산이 같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모든 작품이 낙하산 역할을 한 건 맞아요. 초기 작품들은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적응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낙하산이죠. 최근에 런던으로 이사를 갔는데, 젊었을 때 적응하는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세상 일이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더라고요. 외국에서 얻는 트라우마가 그때만큼 심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낙하산이 나오겠죠?

서도호의 작품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시작과 끝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는 과거나 지금이나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에 대한 얘기'라고 말한다. "사람에 관한 얘기죠. 저에 관한 얘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도 있지만 비물리적인 공간도 있잖아요. 그건 간단히 말해 인간관계예요. 그렇게 생각을 진행하다 보면, 개인과 개인과의 공간이 어느 순간 접점을 만나면 그게 '우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 개인과 전체 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Some/One'이나 '카르마', '하이스쿨 유나폼' 같은 작품들은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사는가로 시작해 군중 속 점이 된 우리를 보여준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서 작품화될 수 없었던 것이 한국을 떠나 밖에서 내다보니 극명하게 나타나더군요. 결국 제 자아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한 것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 결국 큰 화두는 '나는 누구냐'인 거죠. 그 질문으로 모든 게 귀착된다고 보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가 날 돌아보게 하듯, 서도호와의 대화 역시 오감을 자극했다. 차를 벽에 힘껏 들이받았을 때의 자극처럼, 뇌와 몸의 세포들이 깨어나 날뛰는 것 같았다. 그의 작품이 새롭게 완성한 공간을 보는 날에도 아마 내 감각들은 지적 자극을 받아 춤출 거다. '현대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뜨려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는 현대미술을 사유하는 것이 일상의 모세혈관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일깨워주었다. 천으로 만든 그의 집 부분부분을 살피듯, 섬세한 눈과 마음으로 내가 사는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서도호를 만나고 나오는 길, 난 그렇게 시인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B